

번호 21-3

제 목	국 문	일부 공무원들의 생활습관 및 비만도에 관한 조사 연구				
	영 문			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조소연*, 최중명, 최봉근, 송종일, 윤태영, 박순영, 유동준, 김은미 ¹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하남시보건소				
	영 문					
분 야	보건관리 () 역 학 (○) 환 경 ()	발표자	일반회원 (○) 전 공 의 ()	발표형식	구 연 (○) 포스터 ()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○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9년 9 월					
<p>연구목적 : 비만증은 체지방이 체내에 과잉으로 존재함으로써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로,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비만인구의 증가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. 또 최근의 여러 조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성인 비만을 역시 상당히 높는데, 1990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전체 성인 중에서 비만 기준치인 BMI 25를 넘는 사람이 남자 16.3%, 여자는 17.5%로 평균 비만율이 16.8%였다. 또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34.8%, 중년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37.5%가 비만이라고 보고되어 우리나라 성인의 대략 20% 내외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정기신체검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통해 성별·연령별로 비만 유병을 및 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비만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.</p> <p>연구방법 :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 근교 H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654명(남자 491명, 여자 163명)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을 대상으로 생체계측은 신장, 체중, 허리, 둔부 둘레 및 체구성 성분을 측정하였으며, 본 연구에서의 체구성 성분 측정은 BIA 방식 중 다주파 방식의 InBody 3.0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</p> <p>연구결과 : 남자의 평균신장은 $166.8 \pm 6.9\text{cm}$였으며,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볼 수 없었다. 체중의 경우 평균체중은 $68.5 \pm 10.4\text{kg}$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양상을 보여 60세 이상에서는 $62.3 \pm 12.7\text{kg}$을 보였다. 여자의 경우 역시 평균신장은 $165.2 \pm 7.9\text{cm}$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, 체중은 남자와 달리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 50대군에서 $58.5 \pm 9.4\text{kg}$ 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. Waist-Hip ratio의 경우 남녀 모두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없었으며, 남녀 모두 20대군에서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.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비만을 분석에서는 남자의 경우 50대군이 47%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, 여자의 경우 역시 50대군이 43%로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.</p>						